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강화

임실군, SFTS 대응 대책회의

임실군이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빠른 예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0일 재난과 농업, 축산, 산림부서 및 읍·면과 함께하는 SFTS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서는 SFTS 발생현황과 관리원칙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통합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달부터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및 예방수칙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 세대별 기피제도 배부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며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작업,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예방수칙으로는 ▲피부노출 최소화 하기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농작업 후 옷은 털고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목욕) 하기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도 꼼꼼히 확

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군은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11월까지는 유행 시기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진드기 서식지 환경개선을 통한 매개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강화하여 환자를 조기발견, 빠른 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진드기 매개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지역주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은 평소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대응 나서

관련부서 긴급 대책회의

남원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내에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11일 관련부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보건소 보건지원과장 등 7개 관계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관련부서와 23개 읍면동별 역할분담으로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유행하는 12월까지 진드기 주요 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과 집, 농경지, 등산로 등의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농가 개별방문 등을 통해 감염 예방 수칙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11일 관련부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편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SFTS는 예방약이나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암 이야기 순회교육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11일 임실군 북부권 노인대학에서 지역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손민정 강사를 초빙하여 찾아가는 암 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됐다. 손민정 강사는 암 예방에 좋은 식품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 및 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손 강사는 "잡곡 위주의 나트륨을 자제한 싱거운 음식과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 하는게 좋다"며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각종 암의 발병원인에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평소 암 예방에 대한 식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 수칙을 설명함으로써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 암 발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공금한 사안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40-3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마을장터 '살림꽃장'이 13일 군청 잔디밭에서 첫 장터를 개장했다.

순창 '마을장터 살림꽃장' 개장

마을별 특색있는 농산물·먹거리 판매 체험 듬뿍

순창군 마을장터 '살림꽃장'이 오는 13일 군청 잔디밭에서 첫 장터를 개장해 마을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문화를 맛 볼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을장터 '살림꽃장'은 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특색있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문화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다. 장터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와 체험휴양마을 활성화효과도 기대된다. 순창군마을공동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이날 장터는 판매장터, 체험장터, 먹거리 장터 등으로 구성된다. 체험장터에서는 풍산 덕산마을 물레빚기, 달팽이 껍질 색칠하기, 추령장승촌 나무공예, 동계 수정마을 천연염색 판매 및 체험, 미나리화반 만들기, 떡체험 등 각 마을의 특색 있는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농산물 판매장터에서는 마을

별 가장 유명한 제철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한다. 동계면 옥수수, 스틱초침, 냉동 블루베리, 아로니아 분말은 물론 강천산권역 도라지국수, 꽃차, 꽃잼, 순창수목원 표고버섯, 도라지, 참깨, 금관마을 무항생제 소시지, 물통골 차돌배기 국밥, 강천산권역 공국수, 적성면 냉동팔기, 연잎밥, 식용곤충, 곳간에복 발효떡은 물론 커피와 수제맥주까지 다양한 마을별 농특산물이 선보인다. 단체 및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여해 10m 가량의 인절미를 만들고 나눠 먹는 공동체 인절미 만들기 와 주민노래자랑, 색소폰 하모니 카 호호희 등의 공연도 펼쳐져 행사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군 측은 이번 행사가 마을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문화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 안전보건교육

남원시는 지난 10일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8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사업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참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김영훈 차장이 사업장

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여름철에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안전수칙 및 유형별 사전대처방안에 대하여 강조했다. 남원시에서는 매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1명,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4명을 참여시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치매안심센터 경로당 운영

순창군치매안심센터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 및 건강지킴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은 순창군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해 진행하며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사정을 감안해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진행된다. 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이동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27일까지 9개마을 경로당에서 5회씩 총 45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치매선별검사, 우울증검사 및 운동, 음악, 공예활동 등 매우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두뇌활동을 자극해 치매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치매위험성이 높은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저하자, 치매전조증상자, 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고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협약병원(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원의료원) 전문의 상담과 정밀검진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영곤 치매안심센터장은 "비쁜 농번기에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 어르신들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선별검사 등 상시 운영해 효과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인계면지 출판기념회 성황

순창 인계면의 역사와 인물, 문화가 총망라된 인계면지가 출판됐다. 인계면지발간추진위원회는 11일 인계면복지회관에서 황숙주 군수와 정성균 군의회 의장, 이장, 사회단체장과 지역민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면지 출판기념회를 갖고 면지의 성공적 출판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성된 인계면지는 총84페이지 분량으로 인계면 자연환경, 역사, 마을 유래, 산천 지명 및 임항조, 산업, 농업, 사회, 교육, 문화, 인계의 새안, 등 총 14편으로 구성돼 있다. 인계면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양상화 인계면지발간위원장은 "인계면지는 우리가 사는 역사와 사회상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 인물, 함께 사는 이웃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다면서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출간 의미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